

청소년, 담배, 그리고 인권

청소년인권운동, 청소년 기관을 만나다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오후6시

미지센터 세미나실

발제 :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굿데이 (은평 청소년 시설 활동가)



그 그림은 한층 더 완성도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곧 ‘발랑 까진’ 청소년들이며 ‘무서운’ 청소년들이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런 인식과 정서가 현실의 충동을 낳는 사건들이 있다. ‘담배 피우는 청소년에게 훈계하는 어른’이라는 분류의 사건들이다. 사람들은 그런 어른들을 가리켜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의감 있는, 용감한 시민이라고까지 말하고, 어른이 꾸짖는데도 담배를 끄거나 버리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무례하고 불량한 ‘요즘 애들’의 이미지를 씌운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꾸짖으면서 머리를 때린 운동선수’가 폭행죄로 입건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법의 부조리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경찰에서는 발표했다.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가볍게 때리는 등 사회 통념상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거나 선처하겠다고.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때려도 된다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마치 경찰이 입법자라도 된 양 세상의 편견을 법 집행의 기준으로 승화시킨 놀랍고도 불합리한 발표였다.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슨 해결해야 할 사회악일까? 청소년들 자신에게는 해로운 일일 수도 있다. 거리를 지나면서 담배 냄새를 맡는 비흡연자들에게도 해로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그런 청소년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선도’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어른의 책무라고 믿는 시민들의 심리는 대체 어떤 것일까. 청소년들이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이 마치 국가의 윤리와 기강이 흐트러지는 상징인 것처럼,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일까? 하여튼 담배가 청소년혐오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된 소재 중 하나임을 틀림없다.

□□□□, □□□!

청소년과 흡연, 담배 피우는 청소년. 사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고 혼란스럽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는 담배가 특별히 좀 더 유해하고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 청소년들 자신을 생각하고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담배가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퇴학까지 시키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일까? 퇴학당한 청소년들은 오히려 별다른 제약 없이 더 쉽게 담배를 피우게 되지 않는가? 그제 청소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사람들은 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폭행에 노출되어도 된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청소년의 몸과 건강과 삶을 청소년의 자신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은지. 이미 어느 순간,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학생답지 못하고’, ‘불량해서’ 그런다는 식의 동어반복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와 관련해서 겪는 과도한 징벌과 어려움들을 개선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담배에 관한 규제들이,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향하는 사회적 시선과 낙인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간 더 넓은 시선으로 청소년과 담배를 둘러싼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많은 경험담과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

□□ 2

□□□ □□ □ □ □□□?

□□□

□□□□ □□□□ □□□ □□ □□□

□□나라로 연□을 받고 □□ □ 수 있다고 □하□ 엄청 □회를 했□요. □담배를 □게 □ 수 □□□?'□□ □□으로 □문을 □었지만 □□ 조□□려운 문제이고 자□ 개인의 의견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이나, 기관의 의견으로 보일까봐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 □든 것들은 지극히 굿데이 개인의 의견이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년 담배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언론에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이야기하 □□ 개인적으로 흡연이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이 잘 안되어서 걱정인데요. 또 가끔은 청소년 □ □□과 관련해서 항상 □흡연문제□라고 칭하는 것도 왜 꼭 저렇게 불러야 할 까라는 생각이 □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흡연이 문제라고 칭하면서 대한민국은 왜 담배를 팔고 있는 것일까? □□ □□ □□ 질문을 하기도 하구요. 여튼 제가 흡연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서 대한민국 청소년 흡연율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 □□□□?

□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17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한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¹⁾□ 살펴보면 흡연하는 남학생은 10명 중 1명 (11.9%),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남학생은 6.2%, □□ □ 간접흡연 노출률은 29.0%라고 합니다. 단 2014년 대비 2.1%, 1.9%, 4.8% 감 □□□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청소년통계에도 들어가는데 2015년 중고등학생 흡 □율은 7.8%로 전년 9.2%보다 1.4%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감소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봐 □ □□ □까요?

□□□ □□□

□는 □□□구청소년문□의□ □나는□□터□터□라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 □□ 중입니 □. □□ □□□수련시설에서 □□하다 보니 이 자리에 불□ 온 □ □은데요. 사□ 저□ □터 □ □ □터□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 □터 □□가 대부분이 시민사□ □□ 출□이고, 노□□은 □□□□ □고, □터 데스크에는 항상 서명지가 □여 있고, 지□ 네 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하구요. 주입식보다는 함께 논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도 기획하다 보니 일회성 행사보다 기획단을 꾸려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 일 때가 많습니

1) 국가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계획 일환으로 2005년에 도입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매년 실시. 2015 년도에는 7개 시군구 대상, 중고등학교 각 400개 대상 68,043명 표본조사 실시

다. 그래서인지 다들 담배 피는 것에 크게 관여하거나 나무라지 않거든요.

센터에 오는 친구 중에는 몰래 흡연하는 친구도 있지만 때때로 당당하게 담뱃값을 보이거나, 냄새가 지독한 친구들이 올 때도 있는데요. 그럼 제가 가장 많이 다가가서 ‘아이고, 냄새야! 피* 쫘 뿌려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 담배를 피웠고, 지금도 담배를 피는데요. 쉽게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청소년 시기에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안 좋다! 끊어라! 그러면 청소년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니가 먼데? 라는 반응과 하나는 센터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피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담배꽂초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 ‘아무 곳이나 침뺨지 말자’, ‘담뱃값도 비싼데 조금 줄여보자’ 정도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담배 피는 친구들이 배워야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성인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요.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무 곳이나 담배꽂초 던지는 사람, 침을 계속 뱉는 사람 등등..매너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담배 문화나 매너에 대해서는 말안하면서 무조건 나쁜 거야라고 말하면 누가 듣고 싶겠어요. 술은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담배는 ‘야이~ 어린자식이~’ 라는 말부터 나오는 문화가 전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센터가 생기고 1~2년간은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센터 주변에 금연 팻말을 붙이는 거 왜에는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최근에 날씨가 더워서인지 센터 1층에 낮부터 앉아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웹툰, 짤방, 게임을 하고, 중간 중간 담배 피러 나가곤 합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정학을 맞은 친구들이 대부분인데요. 덩고 돈 없고 배고프고 갈 곳이 없어 센터를 오거든요. 그런 친구들보고 담배 피우는 거 때문에 쫓아낸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조금씩 인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얼굴도 트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게 더 좋지 않을까요?

다른 시설들에게 물었더니 선생님과 동행 하에 피는 것을 허락하는 곳, 옥상에 담배 재떨이를 갖다 놓는 곳, 그냥 무시하는 곳 등 다양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가만히 놓아둔다는 분들과 한마디씩 말은 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요즘 저에게 가장 고민의 지점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물었죠. 담뱃값도 올라가는데 담배 사는 게 쉽냐고? 친구들은 웃으며 지나갔죠. 그리고 얼마 안지나 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다들 다리다리 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고 물었더니 1~2만원의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배팅을 해서 사다리 타기 또는 축구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아니 무슨 게임을 하는데 담뱃값을 벌수 있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센터에 오는 또 다른 친구에게 다리게임을 아냐고 물었더니 요즘 유행이라고 말하면서 외모지상주의 웹툰에 나왔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웹툰을 정독했는데 ‘아~ 덩’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리 실제 일 같은지...단순한 웹툰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왜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이리 자본 속에서 움직일까 라는 우울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상대로 한 조사에서 60%가 금연 의사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40%가 스트레스, 15%가 주변환
□ 및 주변 사람에 의해서, 14%는 의지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찾아가는
□□□□스, 캠프, 찾아가는 클리닉 등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 담배가격 인상으로 생긴 세수는 다시 흡연자를 위한 것으로 써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걷은 담배세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00억원이 많았습니다. 흡연부스 환풍
□, 넓은 재떨이통 등 흡연자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 □□, □□□□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바랍니다. 흡연부스 설치하자는
□견이 대두대고 있는데요, □□%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하나, □□적인 문제는 금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습니다. □국 자□의 인□와 의지에 □
□ 금연□이 해□책이라고 생□합니다. 흡연은 □□입니다, 금연은 치□입니다.

하나, □□□□□ □제가 아니라 □리 □두의 문제입니다. □□ □여해주셨으면 □겠습니다.
□□ □두에 부정적인 영□을 미칩니다. 이를 해□하는 □□ □시 흡연자 □ 아니라 비흡연자
□□□ □□ 해야 한다고 생□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금연을 □조하기보다 상생하는 □□을 찾
□□□□□□.

□□□□□ □□□ □□□

□□□ □□□□□! □□ □치던 친구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저에게는 조금 감동적이었습니다. 담배 필 곳
□ □□ □□□□, □□에 □□ 문제제기만 있는 요즘인데 이렇게 상생하는 방법, 담배 피는
□람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 조금 담배 피는
□과 안 피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토론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 □□ □□□ □□□□□□□□.

□□ □창 시절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 학교마다 달랐지만 대부분 체벌 중심
□□ □결을 하셨고, 아니면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피켓 들고 무릎 꿇고 몇 시간동
안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
□□ 센터에 오는 친구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교
에□ □□□ 피다가 걸리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정학, 퇴학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
□. 간□ 학교에 □라 중간에 금연학교를 보내는 곳도 있고, 별점이나 체벌로 □내는 학교도
□□□ □□요. 그리고 자연□□게 흡연에 대해 이□기 하다 보니 □벌에 대해 이□기를 나□
□□□□□. 우리 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담배 피다가 걸리면 □ 자□ □내기만 하□는 거□
□. 그리고 담배 피다가 □□ □ 걸리면 정학 당하기 □에 학교에서는 더□고 아니□□서 담
□□ □ □다고 하더라고요. 결□ □는다고 하는데 결□ 학교 안에서만 안 되는 것이고, □에
□ 아무 상□ 안 하는 거 아니□는 거□. 결□ 학교 나오자마자 □라 주차장이든, 골목길이든
피울만한데가 있으면 피운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별점이 있으면 별점으로, 체벌이 있으면 체
□□ □□□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학교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 과연 올바른 해결 지점일까요? 사실 소속된 곳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 학

□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 □□□ □□□

□□□ □음 피우는 원인이 대부분 단순한 호기심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리 □ 스트레스 해소로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알고 있죠. 담배가 나쁘다는 □ 짬은 그리고 담배 나쁘다고 인식하는 친구들은 이미 안 피웁니다. 담배를 피웠을 때 그리고 끊고 싶을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아야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 □ □□ □신의 의지를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성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 또는 누군가 담배를 권할 때 나는 안 피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성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주체성이 있다면 전 위에 언급한 다리다리 게임이라는 불법토토 게임에 빠지는 것도 □□스럽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주체성이 존엄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결국 자신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예의도 가질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생 □합니다.

웁고 그림을 떠나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한 권리, 담배 피는 것에 대해 자□□게 이야기할 권 □에 대해서도 우리 □□가 자□□게 이야기하는 주체성에 대해 고□해보면 □겠다고 생각합 □□. □서□이 주□리 주□리 이야기□는데 들어주□서 □사합니다.

2부 주제 토론 (19:30 ~)

1□□□□ 시설 □사자들과 □소□인권운동이 학교에서의 □연 □별□션 문제에 어□게 함께 □□□ □ 수 있을까□

□□□가가 □소□의 □연을 □지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소□지도사나 □소□ 시설 □사자 □□ □□□의 □연을 □지도□화□도□ 요구□는데, 어□ □도를 가□야 할지 고□ 나누기